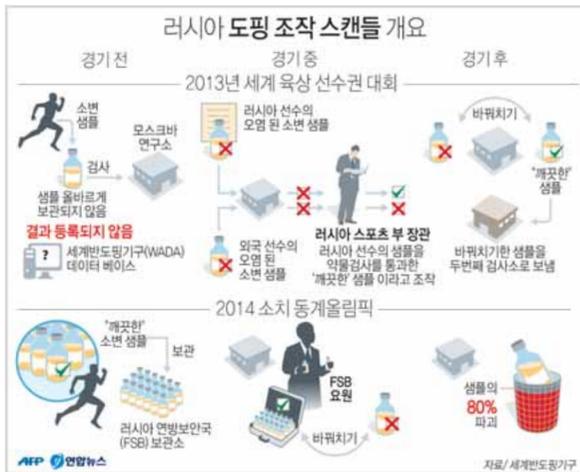


러시아 '약물 파동' 된서리...평창 올림픽 찬서리

러시아 평창올림픽 출전 금지 파문

IOC, 국가 주도 도핑 조작에 국가 전체 출전 금지 제재
동계 스포츠 세계 5강 러 불참...평창올림픽 흥행 악재
도핑 통과 선수 개인 출전 가능...오류기 유니폼 입어야



2014년 2월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러시아 선수단이 국기를 앞세우고 입장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5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국가 주도 도핑 조작 스캔들을 일으킨 러시아 선수단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하고 약물검사 문제가 없는 러시아 선수들에게는 개인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선수들은 러시아 국가명과 국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시상대에서도 러시아 국가 대신 '올림픽 찬가'가 울려 퍼진다. /연합뉴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국가 주도 도핑 조작 스캔들로 세계를 놀라게 한 러시아에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 IOC는 5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어 러시아 선수단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했다. 다만 약물 검사를 문제없이 통과한 '깨끗한' 러시아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평창에서 기량을 겨룰 길은 터졌다. 개인 자격의 러시아 선수들은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lympic Athlete from Russia-OAR)'의 일원으로 'OAR'와 올림픽 오륜기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참가한다. IOC가 한 국가를 대상으로 올림픽 출전 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1964~1988년 흑백분리정책(아파르트헤이트)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후 처음이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도 종전 후 올림픽에 초대 받지 못했다. 도핑 문제로 나라 전체가 올림픽 출전 징계를 받은 건 러시아가 처음이다. 여자 피겨, 아이스하키, 봅슬레이 등에서 강세를 보이는 동계 스포츠 '5강' 러

시아의 올림픽 불참이 가시화함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은 대형 악재와 맞닥뜨렸다.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에 이은 러시아의 불참은 대회 흥행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집행위원회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림픽 정수를 향한 전례 없는 공격"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러시아 제재를 발표했다. 사무엘 슈미트 전 스위스 대통령이 이끈 IOC 조사위원회는 지난 17개월간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자행된 러시아 선수단의 조직적인 도핑 조작 사건을 조사하고 이날 IOC 집행위원회에 여러 제재를 권고했다. 집행위원회는 즉각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의 자격을 정지하고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불허했다. IOC는 또 러시아 관계자들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승인하지 않기로 하고 비탈리 루트코 러시아 체육 담당 부총리를 올림픽에서 영구 추방하며 유코프 ROC 위원장의 IOC 위원 자격도 정지하는 등 고강도 징계안도 내놴. 아울러 러시아에 그간 도핑 조작 조사 비용과 앞

으로 ITA 설립 운영 자금을 총당하며 1500만 달러(약 163억2000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러시아의 국가 주도 도핑 조작은 지난해 리우 하계올림픽 직전에 터진 리처드 맥라렌 보고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캐나다 법학자 맥라렌이 이끈 WADA 위원회는 러시아가 2011~2015년 30개 종목에서 자국 선수 1000명의 도핑 결과 관련 사건을 정밀 추적했고, 소치올림픽기구(RUSADA)가 소변 샘플과 혈액 샘플을 빼돌리고 바꿔치는 수법으로 조작에 앞장섰다. IOC는 리우올림픽 직전 맥라렌 보고서를 접하고도 러시아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 허용 여부 결정권을 종북벌 국제경기단체(IF)에 떠넘겨 비판을 자초했다. 이후에도 러시아의 도핑 조작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IOC는 관련 사건을 정밀 추적했고, 소치올림픽에 출전한 러시아 선수 중 도핑 조작에 연루된 25명의 기록과 성적을 삭제하고 메달 11개를 박탈했다. 해당 선수는 올림픽 무대에서 영구 추방됐다. /연합뉴스

평창 메달 구도 시각변동

러, 102개 종목 중 32개 종목서 메달권 안현수 "개인 자격이라도 참가하고 싶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으로부터 '출전 불허' 결정을 받은 러시아 선수들의 참가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평창 올림픽 메달 구도에서 시각변동이 예상된다. 동계 스포츠에 강한 러시아가 상당수의 종목에서 메달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선수들이 단체로 불참을 결정한다면 메달 주인도 상당히 달라질 전망이다. 6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의 집계 따르면 러시아는 평창동계올림픽 전체 102개 종목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32개 종목에서 메달권에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세계선수권대회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톱 5에 든 선수들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단 러시아가 현재 세계 정상 수준인 것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을 포함해 바이애슬론 남자 계주, 크로스컨트리 남자 스프린트 단체전과 남자 스키애슬론 등 4종목이다. 여기에 크로스컨트



러시아 쇼트트랙 대표팀 빅토르 안이 6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 대부분의 종목을 비롯해 바이애슬론 혼성 계주, 컬링 여자, 루지 남자 싱글, 스킨호키팀 남자, 피겨스케이팅 페어, 아이스하키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1,500m 등에서도 이번 시즌 러시아 선수들이 3위 안에 들었다. IOC는 엄격한 도핑 검사를 통과한 선수들에 한해 오륜기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출전할 가능성을 열어놓긴 했으나 러시아가 개인 자격 출전을 허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가장 관심을 끄는 선수는 2011년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 안(32·한국명 안현수)이다. 빅토르 안은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3관왕에 오르면서 쇼트트랙의 최강자로 우뚝 섰다. 하지만 부상 때문에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태극마크를 달지 못한 그는 2011년 러시아 귀화를 선택,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3관왕에 오르며 러시아의 영웅이 됐다. 안현수는 '화려한 올림픽 마무리'를 준비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피겨 여자싱글의 '절대 12강' 예브게니야 메드베데바(18)의 개인 자격 출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메드베데바는 러시아 국가 없이 나서는 올림픽에는 출전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연합뉴스

'팔색조' 조계현 KIA 단장 됐다

구단 첫 야구인 단장 "타이거즈 본능 깨우는 데 주력"

'팔색조' 조계현의 또 다른 변신. 이번에는 '호랑이 군단'의 단장이다. KIA 타이거즈가 6일 조계현(53) 수석 코치를 신임 단장으로 임명했다. KIA는 앞서 4일자로 허영택 단장을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신임 대표이사 자리를 맡았다. 이에 따라 3년 재계약에 성공한 김기태 감독을 비롯해 올 시즌 'V11'을 이룬 주역들이 신임 대표와 단장 그리고 감독으로 또 다른 우승 합작에 나서게 됐다. 조 신임 단장은 군산상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뒤 1989년 '호랑이 군단'의 일원이 됐다. 현역 시절 변화무쌍한 공을 던지며 '팔색조'라는 애칭으로 사랑을 받은 그는 1989년, 1991년, 1993년, 1996년, 1997년 한국시리즈 마운드에 오르며 우승반지를 들었다.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를 거친 조 신임 단장은 2003년 친정으로 돌아와

투수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삼성, 두산, LG 트윈스에서 지도자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2012년에는 LG 사령탑에 오른 김기태 감독을 보좌하며 수석 코치로 '동반자'가 됐다. 이후 2015시즌부터는 고향팀 지휘봉을 잡은 김기태 감독과 수석코치로 호흡을 맞추며, 타이거즈에서 6번째 우승 반지를 품었다. 두 사람은 앞으로 3년 간 감독과 단장으로 '동행'한다. KIA 관계자는 "야구인 출신 단장 선임으로 전문성을 강화한 인사"라며 "풍부한 지도자 경력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팀을 운영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KIA는 허영택 단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하면서, 기자동자 박한우 대표이사의 KIA 대표이사 겸직을 해제했다. 앞서 인사에 따라 첫 전임 대표체제가 이뤄진 가운데 타이거즈 사상 첫 야구인 출신 단장까지 탄생하면서



KIA는 '완벽한 명가 재건'을 위한 출발선에 서게 됐다. 새로운 변신을 하게 된 조 신임 단장은 6일 "타이거즈 본능을 깨우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오후에 전화를 받았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라서 당황스러웠다. 준비가 안 되고, 전혀 생각이 안 해본 상태에서 제안을 들어서 마음의 안정이 필요했다"며 웃은 조 신임단장은 "일은 현장감이 있으니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다. 또 구단의 큰 틀이 있으

니가 가고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프런트에서 경험을 하고, 어떤 생리로 돌아가는지 아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단장직을 맡게 된 소감을 말했다. 타이거즈의 레전드로 무시무시했던 왕조 시절을 보낸 그는 올 시즌 우승을 발판 삼아 KIA를 예전의 강팀으로 만드는 데 공을 들일 생각이다. 조 단장은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좋겠다. 처음 하다 보면 길을 가다가 옆길로 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다.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하고 바로 잡고, 의논하면서 가겠다. 내가 단장으로 있는 동안은 가을 시리즈는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밑에서 보고, 성장한 선수들에게 호랑이는 이렇게 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 싶다. 옛날의 강했던 분위기를 심어주고 싶다.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서 움직이게끔 만들고 싶다. 단장을 여유 있게, 뒷집 지고 야구를 볼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웃음)"며 각오를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양현종 조야계약 프로야구대상 수상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잘하겠다"

김기태 감독 프로감독상·임기영 기량발전상

프로야구 첫 통합 최우수선수(MVP)에 오른 KIA 타이거즈 투수 양현종이 2017 조야계약 프로야구대상도 거머쥐었다. 양현종은 6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2017 조야계약 프로야구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상금 1000만원과 함께 순금 도금 클러브를 받았다. 양현종은 "야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잘하는 게 개인적인 목표다. 저희 팀이 2년 연속, 3년 연속으로 우승하는 강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사령탑 김기태 감독에게도 "큰 형님처럼 잘해주셨다. 형님 리더십답게 편하게 해주셨는데, 내년 시즌 정말 잘해서 함께 해주시고 싶다. 단장을 여유 있게, 뒷집 지고 야구를 볼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웃음)"며 각오를 언급했다. 김기태 감독은 프로감독상을 수상했다. 상금은 200만원이다. V11의 또 다른 주역 KIA 임기영은 롯데 박세웅과 함께 기량



발전상과 1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신인상은 고졸 신인 최호민에게 출장해 역대 신인 최다 안타와 최다 득점을 새로 쓴 넥센 이정후에게 돌아갔다. 최고투수상은 장원준(두산), 최고타자상은 홍남환(46홈런) 최정(SK), 최고구원투수상은 구원왕(37세이브) 손승락(롯데)이 받았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국민타자' 이승엽(전 삼성)과 부상을 털고 마운드 복귀에 성공한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은 특별상을 받았다. /연합뉴스